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5월 17일(일) 제1589호

더멋진가족, 생명의 물이 되다



5월 16~17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작성서 작성 및 홈페이지, QR코드, 전화로 신청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더멋진가족, 생명의 물이 되다'를 주제로 5월 16일(토)과 17일(일) 열린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참여하면 된다. QR코드 또는 전화(02-2271-2246)로도 신청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는 주일예배 특순, 홍보부스 및 포토부스 운영,

사진전 등을 한다. '더멋진챔버'가 특순하고, 홍보부스에서는 NGO 더멋진세상 소개, 후원 약정서 작성, 이벤트 등을 한다. 포토부스는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 설치되고, 사진전은 5월 8일(금)부터 17일(일)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원형홀에서 열린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설립된 국제개발 NGO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지역개발, 긴급구호, 난민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사업에 약 59억 원을 집행했다. KOICA, GGGI 등 기관협력 사업까지 합하면 11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핵심 사업은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5개국, 아시아 4개국, 아메리카 3개국에서 식수, 보건, 교육, 농축업,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왔다. 르완다에서는 영양결핍 아동과 취약 여성 가정 258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사업'을 했고, 남수단에서는 우물 설치와 수리를 통해 약

5,700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했다.

인도적 지원 사업도 이어졌다.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약 1,185가정(4,639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했고, 우간다 남수단 난민 정착촌 약 6만 명에게 식수, 의료, 양계 훈련 등의 지원을 했다. KOICA, GGGI, UNDP 등과 '르완다 빈곤 여성 자립역량강화사업(20억 원)', '세네갈 지속 가능 농업 기반 구축사업(16억8천만 원)' 등 기관협력사업도 수행했다.



관련기사 5면>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5월 19~21일 '2026 정신건강 세미나'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신청을 서둘러야겠다.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식사, 간식비 및 교재비 포함).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2026 정신건강 세미나는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울과 불안에 대한 실제적인 강의가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532

/ 남현영 기자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

6월 10~12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왕의 기도'를 주제로 오는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3개 캠퍼스에서 막 오른다.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6월 10일(수)과 11일(목)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나머지 캠퍼스 성도들은 각 캠퍼스 본당에서 모인다. 마지막 날인 12일(금)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연합기도회를 한다. 10일과 11일은 양재온누리교회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유튜브로는 송

출되지 않는다. 마리아행전 '왕의 기도'에서는 10일 이재훈 위임목사 '자신을 위한 왕의 기도', 11일 정명호 목사(해성교회) '교회를 위한 왕의 기도', 12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세상을 위한 왕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5월 16일(토)과 17일(일) 주일예배와 수요일전여성예배 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 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667(서빙고), 02-570-7277(양재),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홍하영 기자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영락교회 본당

다음세대와 교육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가 오는 5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영락교회 본당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눅 23:38)를 주제로 열린다.

2026 한국 교회 학부모 기도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한기채 목사, 김운성 목사, 김은호 목사, 박상진 교수, 함승수 교수가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층에서는 <한국 교회 성도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린다. <한국 교회 성도 유권자 인식 조사>,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2-3675-3927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상한 갈대 위에 드리운 날개

룻기 2:1~13

가정을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때로 불행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말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목적으로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여정을 통해서 선택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오미의 가정

〈룻기〉는 절망과 고난에 빠져 있던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룻기〉 1장에 나타난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쓴 맛을 보았습니다.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 매우 준엄해 보이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지만, 한 명은 돌아가고,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외쳤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는 ‘쓰디’입니다.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고,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가 달콤한 섭리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상처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지 그 섭리를 보여 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여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사 42:3).

상한 갈대는 아주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한번 꺾여진 갈대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꺾여진 갈대입니다. 더 강한 바람이 불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갈대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상한 갈대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는 그 외침은 상한 갈대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상한 갈대 같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깊은 상처와 갈등이 있는 가정입니다.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상한 갈대 같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상한 갈대 같은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날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갈대 위에 드리워진 날개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 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룻 2:12).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알고 있었고,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룻의 발걸음을 단지 착하고 선택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의 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갈대 위에 날개를 드리우시는 것입니다. 부러진 갈대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상한 갈대 위에 드리워진 날개가 상처 입은 가정에 소망이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고 계신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상처 입은 가정에 어떻게 소망이 찾아오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먼저 움직이고 계십니다. 〈룻기〉 2장은 룻이 생계를 위해 이사를 주우러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이사를 좁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자진해서 이사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룻은 먼저 시어머니에게 허락도 구합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서 “이사를 주우러 나가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사를 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룻 2:3).

‘우연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우연이 우연히 일어났다.”

두 번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연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우연이 아님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우연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룻이 일꾼을 따라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연은 바로 그날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지주였던 보아스는 매일 밭에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밭에 나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연이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두세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연이어 겹쳤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일이 두세 번 연이어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우연은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고, 룻을 준비하고 계셨고, 추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우연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가정에 소망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정이 나오미처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소망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절망의 가정에 기대 이상의 넘치는 은혜를

둘째, 하나님이 절망의 가정에 기대 이상의 넘치는 은혜를 보내십니다. 보아스가 밭에 도착해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주인 어르신께 복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일꾼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이 룻의 일터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종일 열심히 일하는 룻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룻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섯 가지 은혜가 룻에게 베풀어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계속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음껏 마시

“가정은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행복도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식사에 초대해서 베풀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은혜롭습니다. 원래 이삭은 떨어진 것만 주울 수 있는 것이 율법인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이삭을 빼서 떨어뜨려라. 주울 수 있게.”

롯의 자존심을 지켜 주면서도 넘치도록 채워 주는 섬세한 이 마음은 법과 의무를 초월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자신이 가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헌신을 단순한 효성이나 미덕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롯의 행동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 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날개’는 <시편> 기자들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시 57:1).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 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네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시 91:4).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기도했던 언어로 롯의 삶을 해석한 것입니다. 모압에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이방 여인의 발걸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롯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사람과 사역

<룻기> 3장에 가면 이 ‘날개’라는 단어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가 3장 9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롯이 보아스에게 간청할 때 쓰였습니다.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날개’라고 했던 ‘날개’라는 단어가 ‘옷자락’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날개가 없으니 옷자락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롯을 위해 “여호와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려 온 네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보아스가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된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와 날개를 위해 기도한 보아스가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와 같은 가정에 날개를 펴 주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날개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여호와와 날개가 되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이흠 사역’은 매우 귀합니다. 버림받은 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위탁 가정이 되고, 입양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가정입니다. 제이흠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롯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자신이 롯의 응답이 된 보아스처럼, 우리 모두가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날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당시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의

재산을 사 줌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롯을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그 시대는 고엘, ‘기업을 무른다’,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와 롯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심을,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인다

셋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입니다. 롯이 일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돌아가 모은 이삭을 가져다 드렸고, 자신이 일한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말했을 때 나옴이가 말합니다.

“나옴이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진절을 베풀더니 살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 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룻 2:20).

나옴이는 보아스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보아스가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옴이가 믿음의 눈을 열게 되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고, 방향을 잡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나옴이가 보아스를 이미 알았지만 보지 못했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망 때 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 속담 뒤에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구속자가 되었듯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옴이와 롯의 가정을 구속하고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롯을 위해 하나님의 날개를 구하다가 자신이 날개가 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할 때,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날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됨을 감사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나옴이의 가정이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한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모든 가정에 여호와와 날개 그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후보자 모두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투표할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하나도 없어서 투표 안 할 거야”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선거에서의 선택은 때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시민들은 언제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모든 면에서 동의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용지를 그냥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투표는 항상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더 낫다’는 뜻일 수 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투표’도 비슷하게 느낀다. 우리가 투표하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동의하는 것처럼 느끼기에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공직을

채우기 위한 투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이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과 더 비슷하다. 지원자 중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이력서를 살펴보고,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대했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가 더 잘할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최소한 누가 가장 적은 해를 끼칠지는 판단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항상 마음에 드는 선택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투표는 인생의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가장 나은 정책에 투표하라. 인격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열렬히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지에 없다면, 우리가 열렬히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대표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 한 후보는 낙태 산업을 위해 일하고, 다른 후보는 생명을 보호하려 하는가? 한 후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 하고, 다른 후보는 자신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수녀와 교회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지지하는가? 한 후보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의료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부모의 권리에 개입하기를 원하는가? 모든 유권자는 어떤 사안이 가장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모든 후보가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더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

셋째, 가장 나은 팀에게 투표하라. 어떤 정치인도 혼자 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후보는 정당에 속해 있으며, 모든 후보는 후원자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시장, 도지사, 대통령 같은 행정부 직책은 내각 구성원, 판사, 대사,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수천 개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기도 한다. 다른 후

보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선택할 때는 그와 함께 데려올 팀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감독 모두 이상적이지 않다면, 그 팀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투표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불완전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어느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투표는 항상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더 낫다’는 뜻일 수 있다.”

“가장 나은 정책에 투표하라.”

“가장 나은 팀에게 투표하라.”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미술

현대미술, 왜 불편할까?: 파편화된 예술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찾기



김지혜 권사
(서빙고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미술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기괴하고 혐오스럽다”며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우리는 때로 기괴한 이미지, 해체된 형상, 낯선

재료, 도발적인 메시지 앞에서 불쾌감마저 느끼기도 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현대미술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함, 혹은 반기독교적 도발로 다가온다. 아름다움과 질서, 선함과 진리를 추구해야 할 예술이 오히려 혼돈과 상처, 폭력과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다”, “병들었다”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등을 돌리곤 한다.

현대미술은 정말 타락한 것일까? 미술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재현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한 비판일 수 있다. 19세기까지 미술의 주된 목적은 세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진 기술의 발명 이후, 미술 자체의 형식적 순수성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모더니즘 미술이 성행했다. 또한 20세기 전반의 두 차례 세계대전, 산업화와 대량 학살, 근대적 진보 서사의 붕괴는 예술가들에게 아름답기만 한 예술의 충분성에 대한 의심을 낳았다. 거짓된 평안을 그리느니 진실한 고통을 그리겠다는 예술가들은 파괴, 인간 소외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모더니즘 미술의 엘리트주의적 순수성에 반기를 든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예술을 사회, 문화, 정치,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며,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과 가치관은 참된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했다. 예술은 이제 현실 세계와 긴밀히 연결된 실천적 행위로 자리잡았다. 고전 미술이 조화와 비례, 숭고한 질서와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현대미술은 질서가 무너진 이후의 세계를 증언한다. 파편화된 이미지와 해체된 형식은 바로 이러한 시대 경험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편한 현대미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흔적은 진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몸이 훼손된 이미지 속에서 치유에 대한 요청으로, 침묵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으로 드러난다. 피카소(Pablo Picasso)의 <게르니카>는 전쟁의 폭격으로 해체된 신체를 통해 깨어진 세상의 참상을 고발하고, 베이컨(Francis Bacon)의 고깃덩어리처럼 짓이겨진 인간 형상들은 현대인의 실존 불안을 드러낸다. 성경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세계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미술이 보여주는 부재와 상실, 불안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낯선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한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린다. 십자가는 아름답거나 매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거칠고, 찢기는 처참하고 불편한 현장이다. 깨어지고 파편화된 현대 미술의 현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인

간의 연약함을 마주한다. 인간의 근원적 고통과 한계, 현대사회의 모순을 짚어내는 작품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악함을 직면하게 한다.

현대미술의 또 다른 난해함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중세 미술은 문명을 위한 성경의 역할을 했기에 십자가, 천사, 성인, 후광과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도상을 사용했다. 그러나 재현을 포기한 현대미술이 채택한 방식은 ‘비유’와 ‘은유’다. 물론 모든 추상과 상징이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겨자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전하셨듯이, 일부 작품들은 추상과 상징, 공간과 물질이라는 시각적 은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고 영적 실재를 향한 질문을 던진다. 빌 비올라(Bill Viola)는 물과 불, 탄생과 죽음의 이미지로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묻는 영상 작품을 만들고,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은 빛만으로 가득 찬 공간 안에 관람객을 세워 언어 이전의 경험 앞에 놓이게 한다.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품들은 물질 너머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시각화한다. 신앙의 눈으로 읽을 때, 우리는 낯선 시각 언어 속에서도 진리의 파편을 발견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미술계에는 ‘영성의 귀환(Return of the Spiritual)’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로스코(Mark Rothko)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설치미술 앞에서 경외감을 느낀다. 미술관이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성소 역할을 하며 초월의 감각을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 사상가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

aefter)는 이를 “기독교적 진리의 토대를 상실한 이성에서의 도피”라고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기독교적 초월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체험이나 비합리적 사유가 뒤섞인 대체 초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쉐퍼의 이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예술 앞에서의 감동을 비판 없이 영적 체험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감동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으며, 복음의 언어 없이 예술 앞의 경외감은 길을 잃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동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자리한 ‘신성에 대한 감각(Sensus Divinitatis)’, 곧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심어두신 신적 인식의 씨앗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술관에서 까닭 모를 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창조주를 향한 채워지지 않은 본연의 갈망에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의 언어가 스며들 틈이 있다.

현대미술은 어렵고 불편하다. 우리는 그 불편함을 대할 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모든 현대미술이 진리를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낯선 형식이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그 낯선 문법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읽어낼 때 우리는 불편한 현대미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불편함은 때로 우리 안의 익숙한 신앙 언어가 미처 닿지 못한 현실을 보게 하는 통로일 수 있다.

“당신이 ‘더멋진가족’ 입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

NGO 더멋진세상(이하 더멋진세상)이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가 우물을 파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교육하면서 전 세계에 ‘더멋진마을’을 만들고 있다. 그 귀한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온 가족이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고, 아이들이 용돈을 쏘개 나눔에 동참하고, 부모의 유산을 헌금하는 성도들이다. 더멋진세상에서는 그들을 ‘더멋진가족’이라 부른다. 5월 16일(토)과 17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식’이 열린다.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멋진마을’을 만들어갈 당신이 바로 ‘더멋진가족’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후원자(後援者):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름도 내걸지 않는다. 그저 뒤에서, 조용히 밀어준다. 후원자라는 단어가 품은 소중한 의미다.

더멋진세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동안 그들은 늘 뒤에 있었다. 얼굴도, 이름도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뒤를 받쳤다. 더멋진세상의 사역은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 도움의 시작은 이랬다. 예배 중에 본 한 편의 영상에 마음이 동했고, 선교가 오랫동안 품어온 사명이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크기도, 모양도 달랐지만, 그 귀한 마음들이 모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웃과 그들이 사는 마을을 바꿀놓았다.

용돈 쏘개 보낸 2천 원, 사막에서 딸기를 키워내다

한동훈 집사(강동온누리교회)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품어온 마음이 있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진 단체와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 더멋진세상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2017년부터 재능기부와 디자인 작업으로 더멋진세상과 동역을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후원도 하게 됐다.

혼자 후원을 이어오던 한동훈 집사에게 문득 질문이 생겼다. ‘적은 금액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을 딸 해니, 아들 해와에게 나눴다. 아빠의 말을 들은 자녀들이 흔쾌히 동참했다. 2018년부터 자녀들의 이름으로 매월 1천 원씩 후원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금액을 2천 원으로 올렸다. 자녀들 스스로 자신의 용돈을 쏘개 기쁜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더멋진세상 후원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기도와 재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변화되는 더멋진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멋진세상을 후원하면서 딸 해니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사막(세네갈)에 키운 딸기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사진이다. 자신이 보낸 후원금이 사막에서 딸기를 키워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제가 한 달에 2천 원씩 후원한 돈이 사막에서 딸기를 키워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았어요.



▲ 세네갈 딸기 농장과 주민(왼쪽), 남수단 과케마를 우물(오른쪽).
▶ 후원자 한동훈 집사 가정.

그만큼 신기했어요. 그 딸기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이 되는 것도 매우 기뻐요. 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 후원을 이어오던 한동훈 집사 가정에 조용한 변화가 생겼다. 더멋진세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온 가족이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그 작은 사랑이 지구 반대편 마을에서 크게 열매 맺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물을 퍼 올린 ‘부모님의 유산’

김진경 성도(가정사역공동체)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돈이 있었다. 한평생 절약하며 사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산이다.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으신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일까?’를 고민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다. 그 기다림 끝에 한 말씀이 마음에 내려앉았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 38).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어머니가 늘 하시던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생수가 되어 흐르는 장면이 마음에 그려졌다. 그리고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더멋진세상 남수단 과



케마를 식수사업’ 홍보 영상을 봤다. 화면 속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김진경 성도는 하나님이 부모님의 유산을 이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했다. 부모님의 유산을 지구촌 이웃들에게 생명의 물을 선물하는 더멋진세상에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유산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가족들에게 먼저 뜻을 전했다. 부모님께 받은 유산으로 더멋진세상에 후원하겠다고 하면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그래도 부모님께 받은 돈인 만큼, 모든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랐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가족들이 흔쾌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다. 그 덕분에 부모님의 이름으로(김상은, 윤혜경)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김진경 성도 가족들도 더멋진세상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뜻을 모아 동참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더멋진세상을 후원하면서 ‘믿음의 유

산 대물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멋진세상에 후원했다는 사실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우물이 생긴 과케마에 교회도 세워졌다는 소식이었다. 김진경 성도는 그 소식을 듣고 뭉클함이 가득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더러운 물밖에 마실 수 없던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전하는 그 크고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매월 모으는 작은 돈, 오랜 기도 끝에 전달한 부모님의 유산이 지구 반대편 마을에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처럼 더멋진세상의 사역은 후원자의 기도와 나눔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더멋진세상에서는 후원자들을 ‘더멋진가족’이라 부른다. 후원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된다. 용돈 2천 원이 사막에서 딸기를 수확하게 하고, 부모님 이름으로 판 우물이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이 바로 ‘더멋진가족’이다.

후원 문의: 02-2271-2246

목사가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

한 알의 밀알, ‘데이비스 선교사’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데이비스 선교사의 삶은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청년’의 이야기다. 일기에 “선교는 소년 시절의 꿈이자 젊음의 목적이었다”고 기록할 만큼, 그에게 선교는 가슴 깊이 새겨진 뜨거운 부르심이었다.

다.

삶이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데이비스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1876년, 처음 인도로 향했던 발걸음은 말라리아로 인해 21개월 만에 멈춰야 했다.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잠시 선교사의 꿈을 미뤄두고 학교 교장이 되어 주어진 역할에 충신했다. 이때 그는 학교에 “지금 일하라, 마침내 천국에서 쉴 수 있도록”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 말은 단순히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의 깊은 깨달음이었다.

소명을 향한 과감한 결단

다시 인도로 떠날 계획을 세우던 1888년, 데이비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위한 긴급한 호소를 듣게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조선 선교사를 파송 중인 장로교로 소속 교단까지 옮기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다. 제도나 절차보다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호주 장로교의 첫 선교사로서, 누이 메리와 함께 조선행 배에 오르게 된다. 소명을 향한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1889년 10월, 조선에 도착한 데이비스 선교사는 바로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다. 선교사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약 5개월 동안 서울에

서 한국어 공부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일기에 한국어를 ‘아주 어려운 언어’라고 기록했지만, 소식에 의하면 정말 빨리 잘 배웠다고 하니, 그의 엄청난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언어 훈련을 마치고 데이비스 선교사는 중요한 기로에 섰다. 서울에는 이미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에게 성경 번역 작업을 돕자고 제안하는 기회도 있었다. 안정적인 협력과 전문사역의 기회로 여길 만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지역에 대한 강렬한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편안한 서울에 머무르기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개척지를 향하는 강한 소명을 선택했다. 이 결단은 그의 열정이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곳을 향하도록 잘 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상적인 선교는 나라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1890년 3월 14일, 그는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여동생을 서울에 남겨두고, 한국어 선생님과 조랑말 한 마리만 데리고 부산까지 550km나 되는 먼 길을 육로로 탐사하며 전도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걷고, 설교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책을 나누어 주었다. 조선 사람들은 그를 ‘환한 빛을 가져다주는 천사’처럼 반겼다고 한다.

활짝 열린 호주 선교의 문

데이비스 선교사의 조선 선교는 물리적 기간이 너무 짧았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지나 험난한 전도여행 중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 심하게 고통받았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한 직후인 1890년 4월 5일,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에 겨우 34세 젊은 나이로 순교한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이었다. 그의 죽음은 성경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호주 장로교 선교 역사에 영원한 토대를 놓았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멀리 호주 본국에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는 동생의 죽음 이후 호주로 귀국해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그의 순교적 희생은 호주 전역의 교회들, 특히 빅토리아 장로교회 전체가 조선 선교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두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희생에 대한 반응은 곧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1890년 8월 25일, ‘장로교 여성 선교 연합회(PWMU)’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고, 이들은 조선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임 첫해에 무려 1,500명의 회원과 상당한 후원금을 모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데이비스 선교사를 후원했던 ‘청년연합회’와 새로 등장한 ‘여성연합회’는 이후 호주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든든한 두 기둥이 되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불과 1년 후인 1891년, 청년연합회의 파송을 받은 제임스 맥케이(Rev. James H. Mackay) 부부와 장로교 여전도회연합회의 파송을 받은 미혼 여성교사 맨지스(Miss. Belle Megies), 페리(Miss. Jean Perry), 퍼셋(Miss. Mary Fawcett)이 조선으로 간다. 본격적인 호주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보낸 조선에서의 짧은 6개월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었다. 그의 짧았던 시간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출발점이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데이비스 선교사.



글:그림 명남희

101.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경 QUIZ

가정의 달 특집

- 바울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고 답을 찾아보세요.
① 무시하라
② 순종하라
③ 도망가라
④ 칭찬하라

-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고 답을 찾아보세요.
① 건강해진다
② 부자가 된다
③ 생명이 길어진다
④ 친구가 많아진다

- 룻은 시어머니 나옴에게 어떻게 했나요? <룻기> 1장 16~17절 말씀을 읽고 답을 찾아보세요.
① 혼자 집에 돌아갔다
② 끝까지 함께했다
③ 다른 나라로 떠났다
④ 울면서 헤어졌다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이하 어린이 일대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어요. 어린이 일대일을 안 했다면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지나쳤을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 일대일이 제 삶을 바꿔줬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린이 일대일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또 시험(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어

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걸 믿기,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거예요. 이 방법들을 배우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됐어요. 어린이 일대일을 안 했다면 그냥 넘어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대요.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예요. 이것도 어린이 일대일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아기가 젖을 찾듯이 사모해야 한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어린이 일대일을 안 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에게 어린이 일대일을 추천하고 싶어요. 만약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거나, TV에서 예배 방송을 찾아보세요. 저는 보스턴온누리교회를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이주안 어린이
(보스턴온누리교회)

맛있는 말씀 해설(겔 37:5)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겔 37:5).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매우 익숙한 구절이다.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며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에스겔은 ‘마른 뼈’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을까?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다. 선지

자들의 경고에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약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어떻게 바벨론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느냐’는 다소 인간적 생각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떠난 너희가(겔 8:16)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마른 뼈와 같은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겔 36:26-27, 37:14).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대언의 말씀이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생기가 불어오면 죽은 자도 살아나며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생기’란 의미의 히브리어는 ‘루아흐’다. ‘바람’, ‘영’, ‘영혼’을 의미한다. 원문에 정관사(The)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문맥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창세기〉1~2장의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생기’란 단순한 호흡이나 공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마다 새로운 역사와 거룩한 일들이 나타났음을 볼 때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다.

예컨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의 사역이나(창 1~2), 하늘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거나(출 31:1-6), 선택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감동을 받는 용례들(삼상 16:13, 출 28:3, 삼상 10:6, 겔 2:2, 미가 3:8)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 수 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이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욥 2:28-29). 이 사실에 비추어보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

야 한다.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인간은 겸손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자신의 낮음을 알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처럼 구원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분과 죄 많은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마지막 날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앞서 보여주는 것이다.

마른 뼈 환상에 나오는 ‘너희’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분의 영이 개인에게 들어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군대를 이루게 하는데, 그 군대란 사명을 지닌 하나님 나라 백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눅 4:18-19).



김상수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CGN 콘텐츠와 함께 - ‘RE바이블’: 너무 다른 두 형제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야고보



한기재 목사
(중앙성결교회)

작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다르고, 초대교회 처음 감독이 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도 다른 인물이다. 〈야고보서〉 또한 작은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는

성경을 남기지 않았다.

마태는 가버나움의 어부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이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다. 유대인의 고혈을 빨아가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세리는 몸을 파는 창기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렸다. 하지만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능력이 필요했다. 수학 계산을 잘해야 했고, 아랍어와 헬라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에도 능통해야 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마태였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맞지 않으면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갈 수 있었지만, 세리는 한 번 떠나면 돌아갈 수 없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배수진을 친 사람도 마태였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숭선수범이었다. 마태를 부르신 사건 역시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은혜의 순간이었다. 나는 이것을 ‘세렌디피티의 은혜’라고 말한다. 세



렌디피티란 의도하지 않았지만 뜻밖에 얻게 되는 좋은 경험이나 성과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생각지도 못한 은총이 마태에게 임한 것이다.

마태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충성하던 로마 황제를 떠나 예수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변했다. 〈마태복음〉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마태의 간증처럼 보인다. 그는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마태가 결단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큰 잔치를 베푼 것이었다. 이전 동료들을 초대해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더 이상 세리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했다. 성경에서 잔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잔치와 같으며,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함께 기뻐하는 나라다.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 출신이었다. 열심당원은 칼을 품고 다니며 로마의 앞잡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했다. 마태와 작

은 야고보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같은 제자가 되었다.

나아만 장군에게 조연했던 어린 소녀,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구간을 내어준 이름 없는 주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져온 아이의 공통점은 모두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역군이 존재한다. 작은 야고보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세상에는 무명이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나님께는 무명한 사람도 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작은 야고보는 명예와 유명세만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든다.

〈요한서신〉에 으뜸 되기를 좋아한 ‘디오드레베’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역시 어디서든 으뜸되고 싶어 하는 ‘디오드레베 신드롬’을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삶도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은 외적인 유명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란다.

* 더 자세한 내용은 CGN 유튜브, 풍당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영상 QR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난해 11월, 양재온누리교회에서 ‘11월 사랑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공동체 전도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전도집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우리 가정의 잊고 있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만큼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오랜 체념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마음을 열어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 들어선 가족들은 따뜻한 환영과 공연, 말씀과 축복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서 은혜와 완전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날 전도대상자가 100명 넘게 모였고, 함께한 모든 이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밤이었지만, 마치 성탄의 거룩한 기쁨을 미리 누리는 듯했습니다.

비록 아직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날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도 공동체에서 ‘11월 사랑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송파B공동체)

■ 연재 순서 1. ‘돈’은 과연 축복인가? 2. 부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 3. 올바른 투자의 관점 4. 소비주의의 역행과 흘러보냄의 경제학

‘돈’은 과연 축복인가?

기복주의를 넘어 ‘사명적 부요’로



오종규 성도
(前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장, 법무사)

본래의 돈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날 돈은 그 물리적 형태를 넘어 ‘지급 능력’이나 ‘신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모했다. 이제 돈의 가치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

이 사회적 환경과 경제 체제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은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 놓이게 됐다. 물질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돈은 역설적으로 인간을 자신에게 예측시켰으며, 이제는 사람의 됄됨이가 도덕적 가치마저 판단하는 서글픈 척도가 됐다.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진리

어떤 이들은 묻는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와 구원을 다루는 책이라면, 세속적인 ‘돈’에 대해 정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이유는 돈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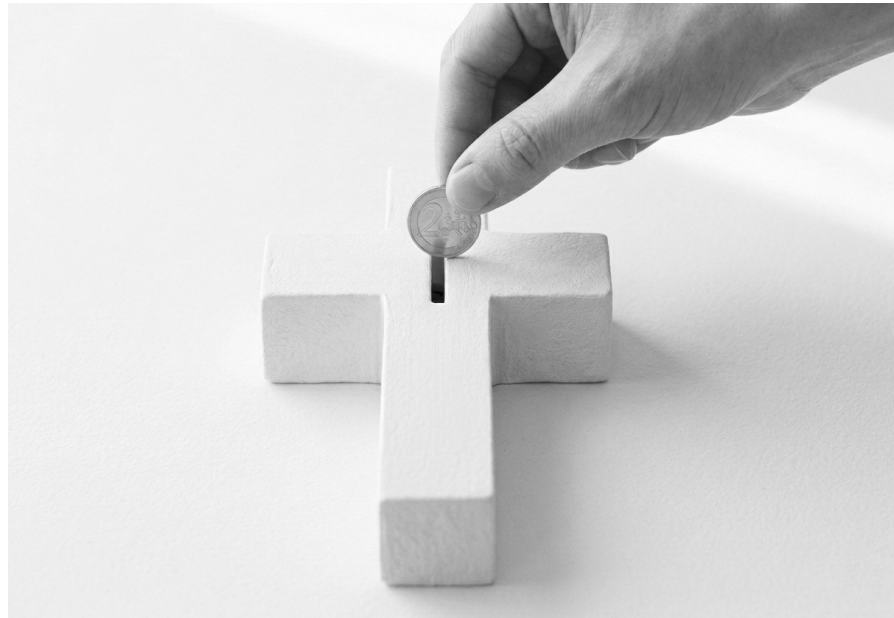
첫째, 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강력한 경쟁자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실체로 ‘재물(맘몬)’을 지목하셨다. 따라서 돈을 정의하는 것은 세속적 공부 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앙의 문제다.

둘째,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된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통해 증명한다. 마틴 루터가 ‘지갑의 회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증거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돈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야 한다. 돈을 단순한 물질로만 본다면 그 뒤에 숨은 ‘영적 권세’에 휘둘리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돈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이유는 돈에 예측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결국 성경이 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돈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4주 동안 이어질 여정은 세속적 경제관을 배우



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아가는 영적 여정의 필수 코스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물음의 답을 해야 한다.

앞으로 4주 동안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려 한다. 1주는 ‘돈은 과연 축복인가?’를 주제로 돈이 곧 도덕적 가치의 척도가 된 세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부유함이 곧 영성은 아니며, 물질적 축복은 개인의 향유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려 한다.

2주는 ‘부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돈에 예측된 가장 구체적인 상태인 ‘부채’ 문제를 직면한다. 빚이 가져오는 영적 종속 상태를 경고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모색할 것이다.

3주는 ‘올바른 투자의 관점’을 주제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돈이 주는 ‘조급함’이라는 권세를 파악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 대신 하나님이 맡기신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4주는 ‘소비주의의 역행과 흘러보냄의 경제학’을 주제로 ‘나눔’에 대해 전하려 한다. 돈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나눔’의 실천을 알아보려 한다. SNS의 과시적 소비문화를 역행해서 잘 번 돈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흘러보내는 성경적 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솔로몬에게 허락된 ‘부’의 이유

우리는 흔히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축복의 결과로 생각한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부를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잠 13:2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마음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족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시라”(신 30:9).

그러나 부유함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영성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재물은 그 자체로 목적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담겼을 때만 가치를 지닌다. 즉, 물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다. 본질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지혜, 섬김의 은사, 통찰력 등 다양한 형태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처럼 다양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복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부는 ‘사명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었다. 아브라함이 누린 물질적 풍요는 개인의 안락을 위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의 재물은 낯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시화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신뢰하며 맡기신 수단이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백성을 잘 재판할 지

혜’를 구했던 그의 사명에 대한 응답이었다. 공의 실현을 위한 통치적 도구였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압도적인 재물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필수 수단이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축복은 곧 ‘우상’으로 전락한다.

돈, 사명 완성을 위한 수단

기복 신앙은 신앙을 ‘인과응보’의 틀에 가둔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비례하는 보상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나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교만이다. 성경은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부유함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후 6:9).

돈이 나의 안전과 정체성을 보장한다고 믿는 순간, 돈은 축복의 영역을 벗어나 영혼을 쪼먹는 우상이 된다. 솔로몬의 비극은 수단(재물)을 사명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다.

따라서 부유함이 곧 영성이 아니며, 가난함이 곧 거룩함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부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재물이 수단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재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재물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 각자의 사명에 맞춰 개인의 성격과 환경,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에 딱 맞게 주시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재물로,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나 인내로 임하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더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축복(수단)으로 완성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재물을 ‘사명을 위한 도구’로 바라볼 때, 소유의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존 칼빈은 ‘부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이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역할을 위임받는 것이다.”

멘토가 멘티에게

슬기로운 이직(移職), 공식 5단계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더 머물게 하시는 때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하시는 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20개가 넘는 회사를 전전하며 취직과 이직, 권고사직과 실직을 경험했다. 믿음이 생기기 전 직장에서의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는 신앙 안에서 청년 지체들의 진로 고민을 돕는 데 사용되니 보람을 느낀다.

이직 문제 역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직의 일반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직장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한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직의 결정은 ‘머무름의 순종’이요, ‘떠남의 순종’이다. 이 글에서는 다소 개인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신앙적 해석, 묵상을 바탕으로 ‘이직 공식 5단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단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명확히 하라. 누

군가는 좋은 직장임에도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업무를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새로운 업무가 두려워서, 새벽 근무가 싫어서 이직을 결정한다. 그러나 막연히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직 이유가 분명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자.

2단계: 옮기려는 회사(단체)가 1단계의 이직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인지 살펴보자. 새로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업무, 마음의 평강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라. 만약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의 자리에서 해결구조를 모색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더 배워야 한다. 부서 이동을 하든지, 본인의 부족한 업무 능력을 개발하든지, 업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머무름의 순종’이다. 반대로 새로운 회사에서 1단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3단계: 떠나는 직장을 친절처럼 생각하라. 회사를 떠날 때 그동안의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쏟아내며 회사를 저주하듯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직장인이라면 떠나는 회사를 축복해야 한다. 그곳에서 업무를 배우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던 것을 감사해야 한다. 또한 나를 힘들게 했던 동료와 상사, 부하직원을 용서하고, 자신이 회개할 부분도 돌아봐야 한다. 가능하다면 회사 대표나 상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인사를 나누며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서의 평판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나를 추적한다.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전 직장에 감사하라.

4단계: 이직 후에도 동일하거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대비하라.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상의해야 한다. 사내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필요하다면 부서 이동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상사와의 갈등이 지휘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더 나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성장해야 하고, 부하직원과의 문제라면 관계기술과 덕을 길러 더욱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5단계: 짧은 기간 동안 이직이 반복된다면 프리랜서나 창업도 고민해 보라. 자신의 역량이 독립적일 때 더 잘 발휘된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한 창업의 도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성급한 창업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직 공식 5단계’가 너무 도식적이라고 느껴지는가? 그래도 이 공식이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는 데 한두 가지 이상의 도움은 될 거로 생각한다. 이직을 여러 번 경험한 필자는 선부른 이직은 기본적으로 말리고 싶지만, 발전적인 도전이라면 오히려 부추길 것이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고위 관직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이직해서 자비량 총독이 되었다. 대국의 고관직에서 소국의 지역 총독을 자원하므로 받았던 수모는 말로 다 못 한다. 하지만 그는 소명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修築)하였다. 일을 탁월하게 수행해서 동족과 이웃을 섬겼다. 소명자의 이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될 수도 있다 (계속).



박기일 장로
(길공동체 멘토,
OCC공동체)

문화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기독교 유적 순례’ - 익산

두동교회 장마루에 앉으면...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와 마한 54개국 중 하나인 건마국(乾馬國)을 세웠던 땅, 서동(蓍童)이 마를 캐다가 선화공주와 혼인하고 백제왕이 된 땅, 고구려 유민 안승이 보덕국을 세웠던 역사의 땅이 익산이다.

익산은 북쪽에 금강을, 남쪽에 만경강을 끼고 있다. 논산, 완산, 전주, 김제, 군산, 서천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금강과 만경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익산은 풍요로운 곳이 틀림없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을 견뎌내야 했던 곳이었다. 지금도 익산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흔적들이 그때를 말해주고 있다.

익산시 성당면 두동편백마을에는 ‘ㄱ자’ 모양의 오래된 예배당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 두 곳 남은 ‘ㄱ자’ 예배당 중 하나다. 나머지 하나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예배당이다.

잘 정돈된 마을 길을 걷다 보면 두동교회

본당과 선교교육관이 보이는데, 마을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새로 지은 예배당 옆에는 ‘ㄱ자’ 모양의 한옥교회와 오래된 종탑이 있다. 백 년은 된직한 반송은 오래된 예배당의 연륜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때는 1923년이였다. 해리슨 선교사와 김정복 씨가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무렵 이 마을은 부자 박재신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대납하기도 했고, 기근이 들면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웃을 도와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선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비를 세워주기도 했다. 선한 성품이어서 그랬는지 부인이 이웃 마을 부곡교회에 다니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다 부인이 임신하자 사랑채를 내주어 먼 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예배드리게 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부인과 태종의 아기를 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재신의 귀한 아들이 5살에 병사하고, 고모의 장례 절차를 두고 전도사와 의견 충돌이 생기자 사랑채를 닫아버렸다.

성도들은 다른 장소에 예배당을 마련해야 했다. 마을 땅 대부분이 박재신의 것이라 그의 소유가 아닌 땅을 구해야 했다. 어렵게 조

그마한 땅을 찾아서 구매하고 예배당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예배당 지을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안면도 소나무를 벌목해서 실은 배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떠다니던 소나무는 밀물을 따라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마을에서 멀지 않은 성당포구에 닿았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헐값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안면도는 소나무로 유명한 곳이다. 예부터 나라에서 쓸 소나무를 기르기 위해 보호하던 섬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 소나무를 개인이 벌목해서 마음대로 팔아 버리는 일이 잦았다. ‘ㄱ자’ 예배당은 이 목재로 지어졌다. 교회는 가난했다. 굶은 목재를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교회 기둥과 서까래와 대들보가 가늘다. 가는 목재를 사용하면 지붕에서 내리누르는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서까래가 다 노출된 천장(天障) 구조를 했다. 지붕 위에도 기와가 아닌 함석을 덮었다. 지붕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었다.

두동마을 성도들은 스스로 박재신의 사랑방을 벗어나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 기도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예배당에 사용할 목재를 준비해 주셨다. 박재신의 선행에만 기대어 신앙을 유지한다면 그의 마음이 변했을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만 기대어 그것을 유지한다면 쉬운 길이긴 하나 허물어지는 것도 순간이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일꾼을 찾아내고 양성해서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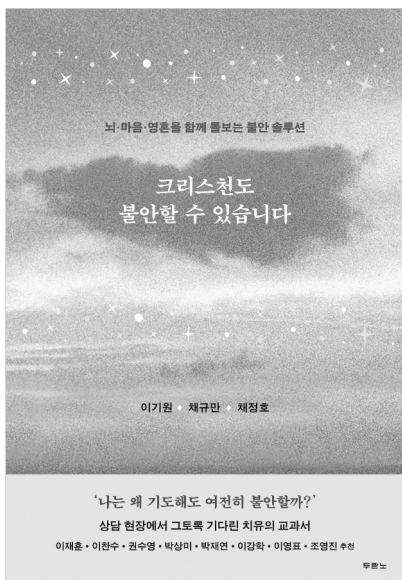
‘ㄱ자’ 모양으로 지은 것은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유교적 질서가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시골일수록 더 강했다.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통적 관습이라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ㄱ자’ 모양으로 지어 남녀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남자도 여자도 교회 출석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는 전통문화를 존중하려는 풍토가 있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두동교회 장마루에 앉으면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전해주게 될까?

* 이 글은 책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전라, 경상, 제주편》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신간

남몰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기원, 채규만, 채정호 |
두란노 | 18,000원

2026 정신건강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를 앞두고, 동명(同名)의 책이 출간됐다. 책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를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홀로 짊어질 때가 많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금 밀려오는 불안함과 염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렇게 남몰래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은 곧 불신앙이라는 암묵적인 공식에 얽매이기 쉽다. 내면

에 두려움이나 우울함이 찾아오면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엘리야나 다윗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조차 깊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갔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불안 자체는 죄나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돌봄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신호임을 말하고 싶었다.

이 책은 채규만, 채정호, 이기원 세 명의 저자가 임상심리학, 정신건강의학 그리고 목회와 영적 돌봄이라는 각자의 전문 영역을 융합해서 집필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불안에 대해 전반적인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몸, 정서, 인지, 영혼을 전인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훈련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 말이나 생각을 넘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방법, 관계적 존재로서 기쁨을 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형성하며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 등을 살펴본다.

집필하는 내내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정죄함 없는 회복이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적인 잣대로 자신을 비판하며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단순히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의학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느라 영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책이 안전한 피난처이자 내면을 비추는 따뜻한 거울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늘 행위와 성과로 인정받으려 하는 분들에게도 쉼과 참된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아울러 상처받은 영혼들을 돕고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 소그룹 리더, 다락방 순장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성경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다. 이 책이 성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돌보는 데 매우 유용한 목회적 돌봄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크리스천도 언제든 불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흔들림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 입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얻고, 불안 너머에 계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한다. 마음의 치유와 평안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이 책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기원 목사
(회복사역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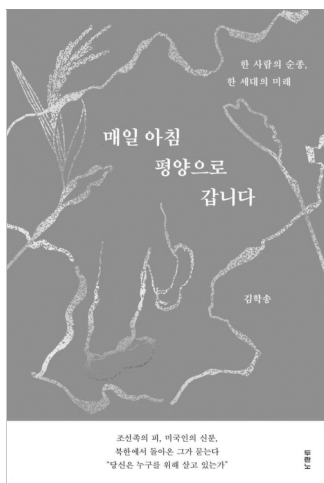
“크리스천도 언제든 불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다.”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어떻게 십자가 은혜 안에서 통합되고, 소화되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불안을 억지로 지위버리거나 숨겨야 할 부끄러운 감정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도록 돕고 싶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코 믿음의 성숙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다루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통로가 됨을 강조했다. 심리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숙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현대판 〈사도행전〉



〈매일 아침 평양으로 갑니다〉
김학송 | 두란노 | 15,000원

실제로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매일 아침 평양으로 갑니다〉는 조선족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평양과학기술 대학에서 농업기술을 보급하며 실험 농장 책임자로 일한 김학송 선교사의 간증집이다. 그는 새벽예배가 초청되어 북한에 억류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이 책은 단순한 고난의 회고를 넘어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과거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는 북한을 향한 실천적 사명을 담고 있다. 둘째, ‘스룹바벨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2세들의 교육과 비전을 세우는 사역으로 확장된다. 셋째, 하나님의 극적인 일하심이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매일 아침 평양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부르심으로 이어진다.

저자의 간증은 현대판 〈사도행전〉 기록이다.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한 김학송 선교사의 삶으로 ‘복음통일’의 비전과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되짚는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복음, 갱신, 전진, 헌신, 정착



〈요한의 제자도〉
이해영 | 두란노 | 18,000원

제자도가 주제인 책은 많지만, 이 책은 독특하다. 예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기 전에 ‘누구로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묻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요한복음〉의 큰 흐름, 즉 예수님을 만남, 그분을 따름, 내적으로 갱신됨, 더 깊이 헌신함, 마침내 공동체 안에 뿌리내림을 따라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저자 이해영 목사는 이 책에서 ‘GRACE’ 다섯 단계, ‘복음(Gospel), 갱신(Renewal), 전진(Advance), 헌신(Commitment), 정착(Establishment)’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신학적 흐름을 풀어내며, 교회 현장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각 장에는 본문 해설과 제자도 묵상포인트, 더 깊이 생각하기 등이 담겨 있어 개인 묵상과 소그룹 성경공부, 제자훈련 교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요한의 제자도〉는 ‘성경적 제자도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성경적 제자도의 본질을 깊이 배우고 싶은 성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목사 안수 소감

“어린이처럼 섬기는 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눅 18:17).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배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감동과 은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끊임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다음세대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누리교회와 다음세대를 섬기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 임동현 목사(서빙고 차세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중”



“목회자는 있고 싶은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야.”

사역지 이동을 앞두고 고민하던 제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해주신 조언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제게 그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많은 제게 ‘주님의 용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게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거이 나아가고, 맡겨 주시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신주용 목사(양재 차세대)

강동, 성도 교제 모임 ‘차마당’ 신설

한 달에 한 번, 교회 1층 나비광장

강동온누리교회가 지난달 12일(일)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을 위한 모임 ‘차마당’을 신설했다. 차마당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1층 나비광장에서 진행된다. 주일예배 이후 성도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교제하고, 순예배도 드린다. 5월 10일(일)에도 모임이 있었다. 차마당은 7~8월 방학을 제외하고 매월 이어진다. 6월

차마당은 바자회로 대체될 예정이다. 노희태 목사(강동온누리교회 담당)는 “차마당”이 성도님들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남현영 기자

경배와찬양 큰잔치 ‘복음의 일꾼’

5월 23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ANM: All Nations Wship&Praise Ministries, 이하 경배와찬양) 큰잔치가 열린다. 5월 23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5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복음의 일꾼’(골 1:23)을 주제로 막 오른다. 하스데반 선교사와 국제사역팀이 예배를 인도한다.

경배와찬양에서는 5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땅을 적시는 소나비’(시 72:6)를 주제로 ‘하루 특별 시편집안 학교’도 운영한다. 훈련비

는 1만 원. 현장등록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한다.

5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잠 14:1)을 주제로 제14기 어머니, 여성을 위한 ‘하루 특별 경배와찬양학교’를 운영한다. 훈련비는 2만 원. 현장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강의 중에는 자녀를 위한 학습센터를 운영한다.

문의: 02-796-9700

/ 남현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환우 힐링콘서트 ‘사랑과 소망의 빛’

환우 힐링콘서트 ‘사랑과 소망의 빛’이 5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병원전도사 역팀이 주관하고, 아트비전이 협력한다. 이날 힐링콘서트에서는 달빛마을 찬양사역자가 출연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 코드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미술전시회도 열린다. 5월 20일(수)부터 6월 4일(목)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원형 카페를 찾으면 된다. 문의: 010-8267-4705



NGO 메디엑세스 시온팀 경남 사천서 의료사역

NGO 메디엑세스 시온팀이 지난 5월 10일 경상남도 사천시 수우도 놀라운교회에서 의료사역을 했다. 시온팀 소속 의료인 9명, 자원봉사자 7명 등 총 16명이 참가했다.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한방 진료와 수액 처치, 이미용 봉사, 노방전도도 했다.

정찬의 팀장(수우도사역팀)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비효율적인 사역이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우도에 갔다”면서 “시온팀의 의료사역을 통해서 수우도 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 홍하영 기자

제12회 온누리 열방탁구축제 개최

6월 6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제12회 온누리 열방탁구축제가 오는 6월 6일(토)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종합관 3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온누리 열방탁구축제는 스포츠 선교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온누리 탁구선교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인천온누리교회가 주최하는데, 캠퍼스 교회 주최로 열리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온누리 열방탁구축제는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소속 선교사들의 탁구훈련 지원이 목표다. 2000선교 스포츠

선교팀과의 융합선교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12회 온누리 열방탁구축제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25일(월)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또는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탁구로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8761-4178

010-8470-120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TIMA 20주년 감사예배

이재훈 위임목사, 마크 최 목사 등 100여 명 참석

TIMA(미주두란노국제선교회) 20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4월 13일(월) 뉴저지온누리교회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Marc Choi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TIMA 본부장), 한총희 목사(TIM 본부장),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조대식 장로(선교분과위원), TIMA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TIMA 20주년 감사예배는 조대식 장로 대표기도, TIMA 선교사 특송, 이재훈 위임목사 말씀 선포, 도육환 목사(영종온누리교회) 축사, 한필연 선교사(과테말라 선교사) 간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하나님이 TIMA를 끊임없이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를 부여할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서 “TIMA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쓰임 받는 선교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우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TIMA 총무)는 “지난 20년은 TIMA가 선교공동체로서 더욱 복음적으로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TIMA의 모든 사역에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양재 일대일 동반자 수료자

대상: 3월 11일부터~5월 11일까지 수료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양재〉	이소민 김인향	■ 온사랑	이주혁 최태형	이연우 이영주
■ 강남A	■ 분당B	방재훈 정리훈	■ Point5	이정민 송은영
김성수 김주홍	이강규 김용범	조하은 최교아	김현식 전문수	임정아 이세인
오준석 유환진	■ 서초A	허진형 김태윤		조정수 강창희
이교철 박상우	노승원 이정선			조재영 정신영
정환은 이호림	■ 서초B			주여찬 김 준
채은희 김서현	김석봉 전승근	■ 온소망		진재균 유민경
	임한나 이경아	강미은 김홍아	■ 갈렙	채효정 오영주
	김대희 김지연	김민석 박도형	김소연 신원선	최승우 고석상
	최지우 유 리	김철철 강상훈	장예원 송민이	최우진 임성아
■ 강남B	■ 서초C	김종희 고원경		한지윤 안은영
강인영 류지성	이지원 김옥규	김주희 유진희		
김대희 김지연	최정혜 김명희	김창민 고석상	■ 여호수아	
최지우 유 리		박소현 김지선	강호준 박윤선	
■ 강남C		박진원 이기성	공린아 양윤정	■ 허브
김형순 송호철		유다솔 이 연	권주희 김미영	김소형 남궁나래
최강원 노병근	■ 송파A	유민정 이경혜	권지현 이시영	박주원 한정옥
	고종임 온애영	이영민 김선아	김가현 김수지	오시은 안미경
■ 강남D	■ 송파B	전영대 이형식	김규리 김은미	이예빈 김지은
김소인 이경란	황성국 이정표	정창상 김태권	김태형 김규한	이인한 이종환
		조나연 정미정	김혜원 박미선	이태휘 이종환
■ 경기A		한 옥 정종호	노재경 최은영	임준서 손경지
김영현 서병재		하윤선 김희준	박병규 이수기	장연우 예태곤
남승경 장우정	■ 양재A	홍서연 김민희	송수민 심규혁	황승현 정승호
	김미정 조미용		송인영 김경실	황유민 이종환
■ 도곡	김순덕 정명숙	■ 특별한초대		
김보경 윤 선	나상미 이미경	서상희 이현주		
이성욱 이숙이	박지현 강현주			
차소림 김주연	이승원 김학동	■ 하나		
황제성 이병철	이혜원 김호운	최수영 전순실		
	홍지원 강선진			
■ 분당A	황유진 안정아	■ Bridge33+		
강은하 이지은		김상진 전상준		
김가연 박정연		김윤정 최상은		
김상태 김학수	■ 온믿음	김지현 주혜운		
서상은 김신현	신관혁 박준형	박민선 김영미		
		이종빈 이태주		



인천온누리교회 창조과학선교팀 창립예배.

“창조신앙 바로 세우겠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 ‘창조과학선교팀’ 출범

인천온누리교회가 지난 5월 9일(토) 창조과학선교팀 창립예배를 드렸다. 창조과학선교팀 및 한국창조과학회 인사, 인천온누리교회 성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창조과학선교팀 창립예배는 찬양과 기도, 특순, 설교, 축사, 강연, 비전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에서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 담당)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신앙의 토대”라면서 “인천 창조과학선교팀이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창

조신앙을 빠르게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주헌 장로(한국창조과학회 회장)는 “인천 창조과학선교팀이 차세대가 진화론에서 벗어나 올바른 창조신앙을 배워가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영애 권사(故 김영길 장로 아내)는 “창조과학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자 인생관을 바꾸는 사역”이라고 했고, 이은일 장로(前 한국창조과학회 회장)는 “인천온누리교

회를 중심으로 창조과학의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종완 장로(인천 창조과학선교팀 담당)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에 올바른 창조신앙을 세우는 창조과학선교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 창조과학선교팀은 창조신앙스쿨 운영 및 창조과학 강연, 진화론에 노출된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 홍현영 기자 hha0@onnuri.org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8월 7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

2026 크리스천 벤처창업대회 ‘어!벤처스’ (이하 2026 어!벤처스, 대회장: 박기일 장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2026 어!벤처스 서류 접수는 8월 7일(금) 오후 6시까지다. 홈페이지(ventures.kr) 또는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비영리 가능)라면 참여할 수 있다. 단, 팀의 핵심 멤버 1인 이상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서류 접수 시 교적증명서 제출).

대회 설명회는 6월 25일(목) TIPS

타운 S1 팁스홀에서 열리고, 심사 및 선발은 8월 8일(토)부터 12일(수)까지 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선 진출 12팀을 선발하고, 최종 결선대회는 12월 5일(토) 개최한다. 총 3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된다. 그랑프리 수상팀에는 상금 1천만 원과 해외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3개월 밀착 전문 분야별 멘토링 등도 제공한다.

문의: venture2impact@gmail.com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장애인 작가들의 전시회

김재원 개인전, 2026 용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부 소속 발달장애인 화가 김재원의 개인전이 사랑할 갤러리(신관1층)에서 6월 13일(토)까지 열린다. ‘노을 지는 목장’, ‘무지개 동산’, ‘빛을 따라가는 여행’, ‘우리는 단짝’ 등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북서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장애인 화가들은 ‘2026 용산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최선영, 황유

정, 최은우, 곽선양, 김대현, 최미애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5월 19일(화)부터 29일(금)까지 용산구청 용산아트갤러리(지하 1층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주말 및 공휴일 휴관).

문의: 010-3128-2332(김재원 개인전), 02-985-3609(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 박지혜 기자

‘하늘의 노래(Heavenly Melody)’

영종어린이성가합창제 9개 팀, 250여 명 참가

‘영종어린이성가합창제’가 지난 5월 9일(토) 오후 3시 ‘하늘의 노래(Heavenly Melody)’를 주제로 영종온누리교회 백향목홀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다섯 개 캠퍼스(부천, 대전, 평택, 인천, 영종)와 인천·영종 지역 교회인 영종중앙감리교회, 인천공항교회, 세계로향하는교회, 하늘사랑의교회 등 총 9개 팀,

250여 명이 참가했다.

영종어린이성가합창제는 다음세대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영종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는 축제의 장(場)이었다. 개회기도, 전영한 장로((주)하남 대표) 격려사, 강창국 목사 기도(영종구기독교연합회장), 각 팀 합창 발표, 심사 발표, 시상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참가팀들은 5분 이내 자유곡 1곡 발표했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수상팀을 선정했다. 1등 ‘하남

대상’ 평택온누리교회 헤세드어린이합창단의 ‘sing!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2등 ‘CGN상’ 영종온누리교회 Little sailors팀의 ‘Baba Yetu’, 3등 ‘영종연합상’ 영종중앙감리교회 교회학교합창단의 ‘하나님을 만나요’가 선정됐다.

도육한 목사(영종온누리교회 담당)는 “이번 합창제는 다음세대가 찬양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영종지역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서 더욱 감사했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 6기 참가자 모집

6월 4~25일 매주 목 오전 10시 온라인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biblecollege.duranno.com)에 강의가 업로드된다. 양육과 부모의 역할 이해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6월 1일(월)까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영유아 부모의 리부팅에서는 영유아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

는 심리적 과제를 이해하고, 양육 도구인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돕는다.

김은영 강사(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초빙교수, 마음지킴이상담센터 센터장)가 1주 차 ‘행복한 부모로’, 2주 차 ‘안정된 애착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2078-3275

/ 남현영 기자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6월 13일~7월 11일 매주 토 서빙고 두란노홀

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젊은부부학교는 성경적 가정관을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부부 대화·소통 실습’, ‘자기애로의 여행’, ‘하나님&축복의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이현주 교수(연세대 상담교향학), 김숙경 소장,

황규복 박사 부부(사랑연구소), 박은정 소장(예순심리상담소), 김재석 목사(가정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젊은부부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8만 원. 5월 2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대상은 결혼 12년 차 이하 부부다.

문의: 010-6381-2483(남편)

010-4892-2661(아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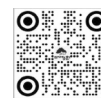
5월 30일~6월 21일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3, 4주 차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가정의 성경적 모델을 제시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실제적인 도움

을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들은 5월 24일(일)까지 전화(010-4427-5025)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40만 원(자녀 동반 시 1인당 7만 원 추가). 계좌번호: 하나는행 573-910017-86505(온누리교회 양재하가운)



/ 남현영 기자

온누리아트비전 회원전 ‘낮은 마음 그리고 동행’

온누리아트비전 5월 정기회원전 ‘낮은 마음 그리고 동행’이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 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 1관과 2관에서 열리고 있다. 6월 7일(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온누리아트비전 정기회원전에서는 매년 온누리교회 표어에 맞춘 주제를 묵상하고, 작품으로 표현한다. 회원 작가 32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온누리아트비전은 온누리교회 성도로 구성된 미술인 선교 모임이다. 사회선교부에 소속된 예술 문화사역단체이다.

문의: 010-3128-2332

장로칼럼

함께 있음,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최용일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휴리조트에 200여 명이 모였다. 체육대회를 위해 모인 포천 하랑센터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 요셉청년부 청년들,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이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운동하며 즐겁게 보냈다. 세대와 문화, 언어를 넘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전 10시 30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행사가 시작됐다.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 예배를 마치고는 같이 운동장을 뛰며 웃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줄을 넘고, 공을 밀고, 함께 넘어졌다. 어색함이 웃음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함께 뛰고, 교감하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는 동대문중앙공동체가 준비한 바비큐 파티가 이어졌다. 30여 개 테이블로 나뉜 풍성한 식사 자리에서 무슬림 근로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을 위해 별도의 해산물 바비큐 테이블을 마련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이 섬김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식사 후에는 나이와 취향에 맞춘 선물 나눔을 했다. 선물 포장지마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등의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물질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통로였다.

행사 이후 하랑센터 박승호 센터장이 SNS에 감동의 나눔을 했다. 그는 “함께 있음 자체가 복음이었던 하루”라고 고백하며 한 외국인 근로자의 질문을 소개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박승호 센터장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라고 답대히 답했다고 했다. 이 짧은 대화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낸 현장이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실제적인 관계 회복의 열매도 맺었다. 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갈등을 겪던 한 가정은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잘 해보자”라고 결단하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 네팔 출신 이주민 근로자는 선물 포장지에 쓰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문장을 읽으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짧은 한 문장이 그의 마음 문을 열었고, 복음을 전할 계기가 마련됐다. 말씀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2019년 시작한 하랑센터 사역의 방향도 다시 확인했다. 학생과 가정, 이주민 근로자가 함께하는 공동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웠다. 행사를 마치고 박승호 센터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며 “하랑센터 사역자로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음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준 귀한 시간이었다. 그 중심에는 ‘함께 있음’이라는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권사칼럼

이 땅에서 가꾸는 천국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벚꽃이 지고 난 가로수길, 초록이 날마다 깊어진다. 연둣빛 잎 사이로 비치는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다. 간간히 허리와 무릎이 신호를 보내지만, 그 초록의 기운에 등을 떠밀리듯 오늘도 운동을 신었다. 아프다고 누는 순간, 몸은 급세 환자가 된다. 누고 싶은 유혹을 털어내고 스스로 일으켜 세울 때 본능보다 의지가 앞서 나를 이끈다. 부서지듯 쏟아지는 햇살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체육관에서 피클볼 라켓을 잡고 공을 주고받다 보니 온몸이 땀에 젖었다. 받기 어려운 공을 간신히 받아내는 순간의 짜릿함은 묵은 우울의 찌꺼기까지 말끔히 털어냈다. 작은 공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잡념은 어느새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맞닿는 느낌이었다. 운동에 몰입하는 동안 불편했던 허리와 무릎의 통증도 슬며시 자취를 감췄다. 파크골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실내와는 또 다른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바람이 풀 향기를 실어 날랐다. 햇살을 등에 업고 몇 라운드를 도는 동안 마음이 한결 느긋해졌다. 오늘따라 공도 내 마음을 읽는 듯 순하게 굴렀다. 2번 홀에서 울려 퍼지는 홀인원의 경쾌한 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승리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다. 오랜만에 구장에 나온 친구의 얼굴이 반가웠다. 허리를 다쳐 한동안 보지 못했던 터라

힘든 고통을 견디고 건강하게 나온 그녀가 대견하고 고마웠다. 운동이 끝나고, 정원이 있는 카페에 자리를 만들었다. 부르면 주저 없이 달려오는 사우회 벗들은 늦게 만났지만, 오래된 인연처럼 마음이 포근하다. 세월 속에서 모서리가 닳아 둥글어진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같은 눈높이로 마주 앉을 때, 우리 사이에는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른다. 서로의 이야기를 품어주고 웃고 공감하는 사이, 멀리 있는 가족 못지않은 따뜻함이 오간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관계의 끈은 더욱 단단해진다. 얼마 전, 별체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주말에 올 때면 텅 비어 있던 집에 생기가 돈다. 텃밭에 순수 상추와 고추, 가지 등 채소 모종을 사다 정성껏 심었다. 흙 속에 작은 씨앗을 넣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고 진지하던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소박한 손길 속에서 푸른 희망이 자라난다. 나는 그들에게 텃밭을 통째로 맡겼다. 넉넉한 마음을 지닌 그들이 식구처럼 편안하고 든든하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삶이 끝나는 날 가야 할 피안의 장소로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오늘 하루, 몸을 일으켜 세운 의지와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 따뜻한 마음들 속에서 나는 작은 천국을 만났다. 천국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다. 바로 오늘, 이 자리, 함께한 사람들 속에 있었다. 날마다 천국을 가꾸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는다. 하루를 덮으며 오늘도 감사로 손을 모은다. 이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가 내게는 천국을 맛보는 더없는 선물이다.

신앙에세이

예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한충희 목사
(두란노국제선교회 (TJM) 본부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4:17)였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행 28:31)는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졌으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구속으로 사탄과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이 세우시고 완성하셨다. 죄 사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예배와 성령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장차 완성될 천국 소망을 선회적으로 확신한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나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골 1:13). ‘Kingdom of God’의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이 더 정확하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나라임을 보여준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도, 완성될 수도 없다.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기에 그분은 곧 진리이시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한 구원과 함께 인간 존엄성을 고양하는 전인격적인 총체적 구원을 제시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지 영혼 구원에 머물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요 1:14)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또 궁핍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한 형제자매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롬 14:17), 의로움과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민족이 화평을 이루며, 피조세계의 온전한 회복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구원을 넘어 전인격적인 총체적 구원을 이뤄내야 한다. 셋째, 교회와 선교단체에는 선교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곧 선교와 복음 전파의 다른 표현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막 16:15)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다. 레비논의 쿠르드 난민들

은 나라 없는 민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구원과 소망이 된다. 그들은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를 함께 소리 높여 외친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시급성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찾는다.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행 28:31).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현세에 도래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죄와 심판과 죽음이 없고, 빛과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화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자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애틀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 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 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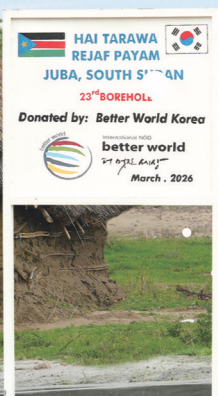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광고	복지재단	재정	소천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온누리선교재단 인사/노무 전문가 정규직원 채용 업무: 인사기획, 노무관리 등 자격: 대졸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등 우대: 노무법인 등 실무자 적극 우대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웅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차매, 중증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움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웅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웅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급 수급자(신청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차매 접수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6)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북방성당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온누리교회 현금은라인 안내 실일주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미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송),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상담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례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5/8(금) 강남E 윤경옥 권사 부친상, 김안강 집사 빙부상 고 유주현 5/9(토) 김민정 성도 모친상 고 정재임 5/9(토) 온소망 정소영 성도 모친상, 박창순 성도 빙모상 고 박정순 5/9(토) 양현 피우진 권사 모친상, 양환기 집사 빙모상 고 용영자 5/9(토) 동작 최응성 성도 모친상, 박해준 성도 시모상 고 이순애 5/10(일) 동작 이원숙 권사 부친상, 이성환 집사 빙모상 고 이석인 5/10(일) 서초C 기칠경 성도 부친상, 정재은 성도 시부상 고 길명섭 5/11(월) 신용산 황영희 성도 모친상 고 김옥금 5/11(월) 동작 김현영 성도 부친상 고 김종건 5/12(화) 양재A 김원영 성도 모친상 고 박경숙 5/12(화) 분당A 김중웅 집사 부친상 고 김우배 5/13(수) 서초B 김윤숙 성도 부친상, 김신석 집사 빙부상 고 김중우 5/14(목) 강남B 장원경 성도 부친상 고 장명환 5/14(목) 양재B 남지은 성도 부친상 고 남상환 5/14(목) 중종로 문상주 성도 부인상 고 홍규숙 5/15(금) 이촌 심숙화 집사 부친상 고 심세용 5/15(금) 온민음 강내영 성도 부친상 엄기호 성도 빙부상 고 강희복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인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더멋진가족, 생명의 물💧이 되다

온누리교회NGO
INTERNATIONAL NGO
더멋진세상

후원약정식 05.16 - 17



후원신청



홈페이지

후원안내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702-002535 (사)더멋진세상 후원 문의 | 02-2271-2246
온라인 신청 | betterworld.or.kr

더멋진세상은 UN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멋진마을을 만들어가는 온누리교회 국제개발 NGO입니다.